

# 국내 최초 불교명상학 박사

서울불교대학원대학서...서현희·이춘호·정순영 등 3인

최근 서구학자들을 중심으로 명상의 효용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최초 불교명상학 박사가 배출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명상학을 전공한 서현희(60), 이춘호(67), 정순영(57) 등으로 이들은 2월 졸업식에서 불교명상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지도교수 정준영 교수는 "국내 최초 명상학 박사학위 수여자"라며 "단순 문헌연구에 그치지 않고 임상 등을 가미한 것도 특징이다"라고 말했다.

서현희 박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불교학을 공부했다. 논문을 통해 답을 찾으려 했고, 깨달음은 '남김 없는 번뇌 제거'라는 것이 그가 구한 해답이었다.

발리 문헌에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이다. 열반을 성취한 사람이 아라한이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벗어나야 할 많은 번뇌들이 전제된다. 이 가운데 열 가지 족쇄는 사성인의 과유(果位)를 구분하고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하고 있다.

서 박사는 ▷수신견 ▷정의의 의심 ▷계율 ▷의식에 대한 집착 ▷감각적 욕망의 탐욕과 악의 ▷감각적 욕망의 탐욕과 악의 ▷세계에 대한 탐욕 ▷무세계에 대한 탐욕 ▷자만 ▷들뜸 ▷무명 제거 등 열 가지 족

쇄를 제거한 사성인(四聖人)을 집중 분석했다.

이춘호 박사는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정법회 거사팀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학위청구논문 '한국 명상가들의 절정 체험과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통해 25년간 각종 명상을 수행해 온 그는 자신의 수행과정을 논문에 담았다.

이 박사는 논문을 통해 옴다 스님, 이원

## '인생 이모작' 만학 결실

### 학회 구성·개론 집필 계획

규, 이승우, 이구상, 해봉, 이여명, 수연당, 김경식, 민형기, 묘원, 나병성, 김연수 등 간학선 동사십, 마음수련, 아바타 등 한국 대표 명상전문가들을 분석했다.

이춘호 박사는 "많은 수행자가 인생 고에 직면해 명상처를 찾게 된다. 깊은 명상 중에 경험하는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시간·공간을 잊고 무아를 경험하거나 공을 체득하는 것에서부터, 정묘한 빛과 소리를 맞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춘호 박사는 절정은 영적 존재를 친견하는 축복과 깊은 이완과 전생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거나, 꿈속에서 꿈꾸는 자기를



서울대 불교명상학 1호인 서현희·이춘호·정순영 박사(왼쪽부터)

의식하는 자각몽, 신체의 원초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로 폭발해 승화하는 쿨달리니 체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했다.

이춘호 박사는 "요즘 청년이 빠른 시대라고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세월을 잊고 살았다. 이모작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학업에 매진해 성과를 얻었으니, 이제 후학들에게 내가 배운 것을 회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간호사인 정순영 박사는 '정신분열 병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

는다. 정 박사는 명상 시도에 많은 주의를 요하는 정신분열병 환자에 주목해 이들을 임상실험했다. 정순영 박사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명상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증상 완화, 불안·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명상을 통한 정신분열 환자 치료를 위해 프로그램을 정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현희·이춘호·정순영 박사는 (가칭)명상학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명상학개론> 집필 등을 통해 공동연구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금속활자 12~13세기 초 한국서 처음 만들었다

김성수 교수, 금속활자 국제학술회의서 주장

지난해 '증도가자(證道歌字)' 발견 이후 '증도가자'가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1337)보다 앞선 금속활자라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남권희 경북대 교수에 이어 증도가자의 '최고'를 주장한 이는 김성수 청주대 교수이다.

김성수 교수는 2월 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고려의 금속활자와 세계 인쇄사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 금속활자 주조의 시원은 고려의 동전 '해동통보'가 주조된 1102년부터 '증도가자'가 주조된 13세기 초기 사이의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김 교수는

지난해 공개된 탄소연대 측정 결과에 주목했다. 탄소연대 측정결과 증도가자의 글자 획 사이에 잔존하는 먹의 생산연대는 1160~1280년이었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가 13세기 초기의 진품(眞品) 금속활자라는 가정 하에 시원을 규명한 결과 국내에서 금속활자가 처음 주조된 시기는 12~13세기 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고려 시대 문인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증도가자로 인쇄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교수는 "<동국이상국집>은 당시 무신최고권력자인 최이의 명령에 의해 간행돼 관주활자인 증도가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사찰도 세계문화유산 될까?

### 16일, 사찰조경연구 학술조명

한국 전통사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 이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소장 홍광표)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한국사찰의 세계문화유산등재, 무엇이

필요한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요건과 한국의 불교사찰' ▷문동규 지리산권문화연구원 연구원이 '지리산의 불교유산-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성 문제' ▷허준 우석대 교수가 '지리산 사찰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등을 주제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 "정중(靜中) 아닌 동중(動中)이어야"

이평래 명예교수, '불교와 요가' 워크숍서 주장

"동중(動中) 수행이 정중(靜中) 수행보다 최고의 지혜 구현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다."

이평래 총남대 명예교수는 2월 3일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공동주최한 동계 불교학 공동워크숍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日 입제종 하우인(白隱: 1685~1768) 선사의 활력선(活力禪) 수행 사례를 소개하며 건강과 정신의 청정성을 일깨워주는 수행에 대해 설명했다.

이평래 명예교수는 "조신(調身)·조식(調息)·조심(調心) 세가지 요소를 하나로 통일해 조화의 극치를 형성하는 것이 진리해탈을 향한 수행의 요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80세까지 전법활동을 했던 부처님은 지혜·건강의 상징이다. 정토구현을 위해서는 사회현상까지 탐파 꿈시켜야 하는데 정중수행만으로 진정한



삼매에 이르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불교요가 실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강사로 나선 소후 스님(조계종 가사원 국장)은 "신체는 훌륭한 사원이고 이 사원이 무너지면 정신세계로의 소통이 막힌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문화재 기후변화 대비 절실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정책학회는 2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유산과 기후변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시자키 다케시 日 도쿄문화재연구소 부소장, 다이안 더글러스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위기관리대응위원회 위원, 이동홍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다이안 더글러스 위원은 주제발표 '문화유산 안전관리의 경험에 대한 교훈과 도전'을 통해 "문화유산 자원을 재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대처팀에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자키 부소장은 주제발표 '기후변화가 아시아 문화유산에 미칠 영향'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우 등이 심해지고

있다. 경우에 의한 탄산염 결석 등 문화유산 훼손을 막으려면 환경적인 요소들을 주시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홍 국립산림과학원 목재보존연구실장은 목조문화재에 치명적인 흰개미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서식 북방한계선을 매년 북쪽으로 끌어올리며 그 피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소개했다.

조동섭 기자

### 보양사 일주문 문화재 지정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월 9일 조계종립 특별선원 문경 보양사의 일주문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보양사 일주문은 19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포계 맞배지붕 형식의 건물로 '궁(弓)자' 형태의 보조기둥 등이 제대로 보존돼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조동섭 기자

## 2013년 문화유산 한 곳서 만난다

### 문화재청, 문화유산 통합서비스 사이트 구축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한 곳서 만나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관)은 문화유산 기록정보(사진·동영상 콘텐츠, 학술자료 등)의 생산·관리·활용 등 전 과정을 체계화·일원화해 누구나 문화유산 정보를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 정립, 시스템과 서비스 기획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록정보 통합 디지털 저장소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통합정보제공 시범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기록정보는 문화재 관련 기

본정보 습득, 수리·복원,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문화적 측면에서 영구 보존가치를 지닌 국가자산이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관과 단체 등에서 문화유산 기록정보를 분산·관리해 정보의 품질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따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기록정보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영구보존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와 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 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승 주: 도량석, 종승등
      - 예 경: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삼보통정,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상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 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오공양, 유원승, 오잡작법
      - 사 물: 태징, 북, 팽시,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김범운 스님, 율봉 스님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2012년 3월 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본종주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 접수기간: 상시모집
  - 문 의 처: 053)581-0232 / 053)581-0233 054)974-2605 / 011-544-26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원

## 교직원 양성 전문교육

# 제 80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묵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승,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오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2년 2월중
- ◆개강일시: 2012년 2월 개강. 매주 (화,목)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경)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